

# 러시아 속의 유대인\*

김 연 희\*\*

- I. 들어가는 말
- II. 제정기 러시아의 유대인 정책
- III. 급변기 러시아 유대인
- IV. 나오는 말

## • 국문초록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은 한 번도 제대로 고려되어 본 적이 없었다. 제정기 러시아 황제들은 유대인들의 권익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다. 그들을 동화시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부조차 고려하지 않았다. 러시아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 그들을 보호하고자 일방적인 탄압이나 정주지 규제 정책을 사용했고 제정 말기에는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의도적인 포그롬을 유도하기까지 했다.

급변기의 소련 정치가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 역시 처음부터 유대인들의 권익에는 관심도 없었고 자신들의 편익에 의해 유대인 동화정책이니 분리니 하는 문제들만 체계 없이 언급했을 뿐이다. 그들은 혁명의 와중에서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나서 잔혹하게 버렸다. 유대인이란 항상 필요에 의해 사용했다 가차 없이 버릴 수 있는 ‘미운 우리 편’, ‘우리 속의 버리고 싶은 타자’로 존재할 뿐이었다.

반면 러시아 유대인들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러시아 속에서 고독한 섬이었다. 일반 힘없는 유대인들은 고립되어 두려움 속에 껍박 받으며 생활했고, 급변기 유대 지식인들은 러시아 민중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끝없는 동화의 몸짓을 보냈다. 유대인이란 사실은 그들 자신이 잊고 싶고 버리고 싶은 멍에이기도 했다. 그것은

\* 본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으로 한국 학술 진흥 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8-321-A00078)

\*\* 성균관대

혁명기 거대한 힘이 되어 나타나기도 했고, 자신들의 고향을 찾고자 하는 시오니즘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몸짓들은 항상 던진 사람을 향해 되돌아오는 부메랑처럼 유대인들에게 되돌아와 그들에게 시련이 되었다.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이후로 유대인박해는 냉전이라는 세계 정치적 흐름 속에서 더욱 극심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유대인들처럼 지속적으로 박해를 받아온 민족이 있었던가? 보통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종교적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교황 요한 23세가 <우리 시대>라는 선언을 통해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저지른 오류와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관계를 재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조금이나마 해결될 실마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의 고정관념 속에 박혀 있는 ‘예수를 배반한 유대인’이라는 관념을 어느 정도까지 바꿔놓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서구 문명의 토대를 이루는 기독교를 있게 했던 민족이 그 종교로 인해 인류역사상 가장 핍박 받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본고에서는 러시아에서 유대인이란 무엇인가? 반유대주의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를 초기역사에서부터 혁명기 전후에 이르기까지 고찰하고 있다.

## • 주제어

러시아의 유대인, 러시아 황제들, 포그롬, 반유대주의, 타자

## I. 들어가는 말

본고에서 필자는 역사적 급변기 러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의 상황과 그들의 여러 양상들에 초점을 두어 러시아의 유대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차후 러시아 문학 속에 형상화 되어 나타나는 유대인 형상의 규명과 유대인 출신 작가들의 문학을 보다 면밀히 연구하기 위한 사회 역사적 전제조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sup>1)</sup>. 또한 한 발 더 나아가 세계문화에서 중심과 주변을 오고가며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화적 힘을 가지고 있는 유대문화가 러시아문화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영향관계를 주고 받았는지 문화사적 측면에서의 연구를 위한 초석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대인만큼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학대당했던 민족이 있었던가? 마치 인류의 원죄를 뒤집어 쓴 것 마냥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유린당하고 학살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유대인 대학살을 이야기 할 때 주저 없이 히틀러의 홀로코스트를 떠올린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히틀러의 극단적인

- 
- 1) 현재 우리나라 러시아 문학 연구에서 러시아 유대인측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유대인 출신 작가들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유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다른 방향으로의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독일 문학권에서 유대 작가 및 유대적 문학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과 비교된다. 러시아에서는 유대문화 및 문학 관련 연구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역사에 관련된 것으로 러시아에서 각 시기별 유대인에 관한 것과 유럽 각지에 퍼져 있는 러시아계 유대인 이민자들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Феликс Кандель는 *Книга времен и событий В четырех томах*라는 4권짜리 저서를 통해 러시아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유럽에서의 유대인에 대한 대표적인 저서로는, М. Дубнов의 역시 4권짜리 저서인 *История евреев в Европе. В четырех томах*를 들 수 있다.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의 역사는 시기별 유대인 고난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Феликс Кандель는 *Книга времен и событий Том 5. История евреев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Уничтожение ев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1941-1945)*에서 1941년과 1945년 사이 자행되었던 유대인 학살에 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독일 점령 하 유대인학살을 다룬 것으로는 *Уничтожение евреев СССР в годы немецкой оккупации*가 있다. 또한 러시아 역사와 유대인과의 문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것으로 혁명과 공산주의와 관련된 유대인 문제를 들 수 있다. Андрей Буровский는 *Великое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Евреи, которых не была Курс неизвестной истории Книга 1*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러시아 혁명에 참여하게 된 원인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있으며, О. В. Будницкий는 *Российские евреи между красными и белыми (1917-1920)*라는 저서를 통해 백군과 적군 사이에서 유대인에 관한 문제를 보여준다. 두 번째 흐름으로는 유대인의 문화와 문학 관련 연구이다. 유대교와 기타 종교 특히 기독교와 아랍종교에 관한 연구와 탈무드에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룬다. Генриэтта Мондри는 유대인과 나로드니키 작가들에 대해 *Писатели-народники и евреи (Г. И. Успенский, В. Г. Короленко)*라는 저서를 통해 소개하고 있으며, *Евреи и жиды в русской классике*라는 작품을 통해 러시아 고전 문학 속에 등장하는 유대인의 형상을 분석하고 있다. 이외에 세계에 영향을 끼친 유대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와 근래에는 현대 러시아의 유대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인종주의를 꼽는다. 그러나 유대인 대학살이 히틀러에 의해 자행된 것만도 아니었다. 히틀러가 저질렀던 학살 이외에 그에 버금가게 동구 및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유대인 대학살, 즉 포그롬<sup>2)</sup>이 있었다. 그러나 포그롬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 확실한 해답을 이야기 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리고 히틀러에게 물었던 정도의 책임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아이러니 하게도 러시아의 유대인들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누구보다 열심히 러시아 군인으로서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웠다. 물론 유대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이해득실을 위한 것이었겠지만 그러나 그 보답은 철저한 버림으로 돌아왔을 뿐이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그 이전 유대인 출신 나로드니키 사상가들 역시 그토록 러시아인으로의 동화를 꿈꾸며 러시아 민중 즉, 농민들에 대한 믿음과 애정으로 활동했지만 끝끝내 농민들은 물론 레닌에게서도 버림받고 만다. 볼셰비키들은 자신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유대인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서, 필요가 없어지면 과감히 그들을 버리고 살육했다. 심지어 아군이 아군 유대인을 살육하는 일마저 벌어졌던 것이다. 유대인에 대한 집요한 탄압과 살육은 40년대 말부터 50년대 초까지 러시아만이 아니라 동구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무리 안에서도 철저한 타자로서 유대인을 취급했다. 러시아 역사에서 유대인들은 영원한 타자로 자리매김 된다. 물론 이런 상황들의 이면에는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과의 이해관계, 미국,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 냉전 등 여러 요소들이 함께 맞물려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급변기 러시아 유대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러시아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러시아에서 반유대주의는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최초 반유대주의 발생 원인과 제정기 황제들의 유대인 정책, 그리고 급변기 드러나는 반유대주의 등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점은 러시아에서 급변기란 단지 우리

---

2) 구소련과 동구에서 대대적으로 행해졌던 포그롬은 러시아어 погром(조직적 학살, 약탈)에서 유래한 것이다. 보통 구소련에서 일어났던 포그롬은 3차까지를 말하는데 1차 포그롬은 1881년 3월 알렉산더 2세 암살 직후 남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발생하였다. 유대인 상점, 집 등을 주로 파괴하였고 이때는 유대인 학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제 2차 포그롬은 1905년 혁명과 관련된다. 혁명운동을 저지할 목적으로 주로 정부에 의해 지시된 것이다. 제 3차 포그롬은 1917년부터 21년 사이에 발생하였는데 지금까지 1, 2차 포그롬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가 보통 생각하는 러시아 혁명기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역사적 상황이 급격하게 변했던 시기를 모두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러시아 역사에서 중요 전환점의 하나로 언급되는 제카브리스트들과 나로드니키를 포함한 혁명기를 함께 포괄하여 다룰 것이다.

## II. 제정기 러시아의 유대인 정책

S. 에팅겔은 러시아에 있어 반유대주의의 시작을 1470년에 있었던 <유대적 이단>사건으로 본다.<sup>3)</sup> 이 이단은 당시 모스크바 궁정내로 퍼졌으며 고위 성직자, 귀족, 또한 이반 3세의 측근까지도 신봉하였다.<sup>4)</sup> 이런 이단의 교세 확장으로 1487년 노브고로드 대주교가 유대교도 추방령을 내렸고, 이반 3세는 1504년 이 이단 신봉자들을 화형에 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처럼 이 유대적 이단은 황제에 의해 근절되었으나 일반 민중을 휩쓸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sup>5)</sup>

블라지미르가 그리스 정교를 국교로 정한 이후, 일반 민중들은 그 당시까지 주로 흑해 연안 도시에서 상업 활동을 하던 유대인들을 점차 적의를 가지고 보게 되었다. 이후 1772년과 1793년, 그리고 1795년에 걸친 3차 폴란드 분할로 인해 폴란드 영토에 있던 약 100만 명의 유대인이 러시아 지배 하로 들어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대 인구를 소유하게 된다.<sup>6)</sup> 이로 인해 러시아

3) 黒川知文, 『소련사회에서의 유대인 정책』 (서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84), 151쪽.

4) 그리스 시대로부터 러시아 국경지대, 특히 흑해의 해안지대에서 유대인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중세 초기부터 유대인들은 무역업자와 유대교 선교사로 남부 유라시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이 1470년대 들어 준-비밀종파를 만들자, 당국은 그들을 유대주의자 라고 부르면서 잔혹하게 대하였다. 폴 존슨, 『유대인의 역사』, 김한성 역, 제 2권 『유럽의 역사를 바꾸다』 (살림, 2008), p.189.

5) 러시아는 특이하게 기독교가 밑에서 위로 전파되는 형식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즉 황제가 먼저 개종하고 민중들에게 이를 믿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파되었다. 블라지미르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을 때 러시아 민중들은 주로 민간신앙에 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루아침에 이 신앙이 바뀌기는 힘들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15세기까지 기독교가 민중의 종교라기보다는 귀족들의 종교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다른 서구유럽에서 민중들이 그리스도를 배신한 신앙의 배신자로서의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강했다면, 러시아에서는 신앙의 배신자로서의 유대인에 대한 반감도 물론 있었지만, 그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유대인들과의 마찰로 인한, 즉 상권다툼으로 인한 미움이 보다 컸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또한 포그롬에 참여한 사람들이 도시하층민, 농민 등이 많았다는 것으로도 설명된다.

6) 미하일 슈체렌스키는 표트르 대제 이전까지 러시아에서 외국인들이 머물 수 있었던 곳은 수도인 모스크바와 항구였던 아르한겔스크 정도의 도시들이 유일한 곳이었다고 한다. 또한 폴란드 분할 전까지 러시아에 왔던 유대인들은 주로 의사들이었으며, 표트르 대제 이전 시기까지 러시아

에서는 많은 유대인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주로 상권과 관계된 마찰이 많았고 이에 제정기 러시아 황제들은 러시아 상인들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를 위해 유대인들을 상대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진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유대인 추방령은 폴란드 분할 전까지 러시아 황제들이 유대인과 관련하여 썼던 주요 정책이었다. 당시 황제들은 유대인에 별 관심이 없었고, 그들을 러시아로 동화시켜야겠다는 필요성 역시 별반 느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유대인을 동화시키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제정하느니 그냥 쫓아버리는 것이 황제들에게는 훨씬 수월했다.<sup>7)</sup> 이 때문에 폴란드 분할 전까지 유대인들은 폴란드 국경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폴란드가 병합된 이후 가장 흥미로운 것은 러시아 군주들이 단순히 평범한 유대인들과 충돌하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외모와 그들의 독특한 생활 태도로 인해 자신들의 동족만이 아니라 러시아 관리들까지도 당황하게 했던 하시디즘 주의자들과의 충돌도 일어나게 된다.

기존의 황제들이 유대인을 단순히 추방하는데 그쳤다면, 예카테리나 2세는 일정한 정주 지역을 정하여 유대인들이 그곳 이외의 지역에서는 정주할 수 없도록 하는 일종의 유대인 계도를 설정했다. 1772년에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별하여 유대인이 폴란드 분할이전 정주지에서 이동하는 것을 금하였고, 1793년에는 명크스, 우크라이나, 소러시아로 그리고 1795년에는 리트비아도 정주지에 포함시켰다. 유대인들은 약 100만 평방킬로미터에 이르는 이 정주지역 이외에서는 정주할 수 없었다. 예카테리나 여제가 이런 정주지역을 정한 것은 이전 황제들의 전통에 따른 전통적인 추방령으로도 볼 수 있으나 직접적 원인으로서는 러시아 상인들의 요구로 인한 것이었다. 러시아 내에서 유대상인들이 상업 활동을 할까 염려했던 러시아 상인들이 자신들의 영역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기를 요구했던 것이다. 또한 이전 황제들이 단순히 유대인을 추방하는 데 그쳤다면 예카테리나 여제는 자신의 관리 하

---

아에 있던 유대인들의 숫자는 너무 경미해 러시아가 강력한 유대인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감히 할 수도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일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를 병합하고 난 후에 정말 갑자기 이루어졌다고 한다. M. Штереншис, *Евреи История нации, Герцлия-Исрадон*, (Можайск, 2008), С.371.

7) 폴 존슨은 이에 대해 러시아 차르의 통치가 처음부터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적개심을 가지고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로마의 다른 독재정치들도 유대인들을 박해하기는 했으나 때에 따라 그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으나 러시아인들은 유대인들을 변함없이 용납할 수 없는 이방인으로 취급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1772-95년까지 러시아에서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유대인들을 몰아내고 있었다고 한다. 폴 존슨, 제 2권 『유럽의 역사를 바꾸다』, 416-417쪽.

에 유대인을 두고 있다는 점이 다소 다르다. 그러나 이때까지 기존 황제들이 유대인을 동화시킬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녀 역시 유대인 동화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책을 취하지 않았다.

이처럼 예카테리나 2세까지의 황제들이 유대인을 추방하고 거주지를 제한하는 등 유대인 분리의 정책을 취했다면 최초로 유대인의 동화문제를 논하며 유대인에게 귀를 귀울였던 황제는 알렉산더 1세였다. 그는 유대인 대표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의 유대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대인을 러시아에 동화시킬 것인가, 유대인들에게 권리를 주어야 할 것인가 등에 관해 위원회에 의견을 묻는다. 위원회의 결정은 1804년 황제의 허가를 얻어 법령으로 발표되었는데 유대인은 사회에 유해한 요소이므로 그 생활관습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유대인이 토지 임대, 주점 경영, 주류 판매 등을 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유대인 거주지를 우크라이나로 제한하며 그곳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는 보조금 지급 등이 결정되었다. 이 결정은 황제가 최초 유대인의 요구에 귀를 기울였다는 의미가 있으나 유대인의 상업 활동을 제한하고 남우크라이나를 개발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이익 역시 고려한 것이었다. 또한 유대인을 교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대인들이 공립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허가되었다. 그러나 알렉산더 1세의 이런 점진적인 동화정책은 유대인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하게 되고, 결국 니콜라이 1세는 강제 동화정책을 펴게 된다. 그는 병영학교제도를 통해 유대인에게 강제적으로 병영의 의무를 지게 했다. 그때까지 유대인들이 병역의 의무 대신 내던 세금을 금지하고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도록 했던 것이다. 또한 병영학교에서 군사교육과 동시에 강제 개종수법을 썼으나 이로 인해 개종한 유대인은 거의 없었다. 니콜라이 1세는 1841년에 유대인 개종을 목적으로 하는 공립학교와 랍비 신학교를 세우기도 하였고 1844년에는 유대인 자치조직을 폐지하는 법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또한 1848년에는 유대인 전통 복장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칙령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니콜라이 1세는 유대인을 동화시키고자 여러 가지 강제 정책을 시행했으나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쳐 대부분 실패하게 된다.

알렉산더 2세는 크림리아 전쟁 후 농민해방으로 대표되는 개혁기에 유대인 정책에도 변화를 꾀한다. 니콜라이 1세의 강제동화 정책이 실패하고 난 뒤 알렉산더 2세는 강제 병영학교제도를 폐지하고 현존하는 유대인에 관한 모든 정책을 재검토하도록 한다. 유대인 위원회는 유대인을 교육시켜 유익한 직업에 종사시킬 것과

유대인 정주지역의 폐지를 요구하였고 황제는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정주지역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자유주의적인 동화책을 실시하였다. 1856년에는 유대인 대학 졸업자에게 정부직을 개방하였고 1862년에는 의사, 약제사 등에게도 개방되었다. 그러나 알렉산더 2세의 자유주의적 동화정책은 1860년대에 변화된다. 1861년 폴란드 반란 뒤, 그리고 그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자 자유주의적 경향이 변화된 데 기인한 것이다. 이 때 대학 졸업자, 유용한 상인에 한해 유대인들에게 특정 권리를 부여하던 것들이 모두 철회되었다. 1870년대에는 유대인이 관공서 직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과 시장직 취임이 금지되었고, 다른 진보적 조치가 있었으나 알렉산더 2세가 암살되자 그런 조치는 모두 사라지고 이후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의 지위는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다.

제정 러시아 시기의 유대인 관련 정책은 5월 법으로 완성된다. 이 5월 법은 1881년 일어났던 포그롬 이후 취해진 것으로 포그롬의 원인이 유대인의 상공업 진출에 대한 러시아 민중의 저항의 표현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알렉산더 3세에 의해 취해진 것이다. 결국 82년 각종 반 유대법이 성립되었는데 이를 5월 법 이라한다. 그 내용을 보면 유대인은 도시 이외의 거주를 금하고, 도시 이외에서 유대인의 상업 활동을 금하며 유대인의 일요일, 기독교제일의 상업 활동을 금하는 것이다. 이 법령은 어느 것이나 러시아 지방 상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살펴보았듯이 제정 러시아시기 황제들이 취했던 유대인 정책은 5월법으로 완성되었고 유대인들의 상업 활동과 도시 진출에 주목하여 유대인을 동화시키고 이용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여 급기야는 강제정책을 썼음을 알 수 있다. 그 기저를 이루는 원인으로 러시아인의 상업 활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러시아 상인들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sup>8)</sup> 러시아 민중들은 특히 반유대주의 전통이 심했던 우크라이나

8) 러시아에서 유대인 관련 정책은 상인들의 영향 하에 주로 황제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나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일어났던 일종의 반 유대 운동도 있었으니 바로 포그롬이었다. 민중들은 특히 반유대주의 전통이 심했던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종교적 갈등에서보다는 상업적 요인과 슬라브주의 등 민족주의적 이유와 더불어 여러 차례의 포그롬으로 유대인에 대한 감정을 표출했다. 제 1차 포그롬은 1881년 3월 알렉산더 2세 암살 직후 남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발생하였다. ‘남부의 폭풍’으로도 불리는 이 포그롬은 약 30개의 촌락과 시가지로 확산되었다. 엘리자베스그라드, 예카테리노그라프, 키예프, 폴타바, 체르니고프 등지로 거의 동시에 확대되어 경찰과 군의 개입에 의해 진압되었다. 주로 도시하층민, 농민, 코사크인 등이 참여했다. 포그롬이 발생하게 된 주 원인으로는 당시 경제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여 물가 급등, 인플레이, 유대인 상인에 대한 러시아 상인들의 적대감, 그리고 도시 하층민들이 직업을 얻는데 있어서의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 등이 작용했다. 처음에는 주로 유대인 상점이나 거주지를 파괴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1, 2일 만에 무질서하게 일어났다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정한 조직이나 계획도 없이 유대인 상점이나 가옥 등을 파괴하는데 그치고 유대인 살해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거

이를 중심으로 종교적 갈등에서보다는 상업적 요인과 슬라브주의 등 민족주의적 이유와 더불어 여러 차례의 포그롬으로 유대인에 대한 감정을 표출했다. 주로 도시 하층민, 농민, 코사크인 등이 참여했다. 주 원인으로는 당시 경제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여 물가 급등, 인플레이, 유대인 상인에 대한 러시아 상인들의 적대감, 그리고 도시 하층민들이 직업을 얻는데 있어서의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 등이 작용한다. 처음에는 주로 유대인 상점이나 거주지를 파괴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1, 2일 만에 무질서하게 일어났다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거기에는 러시아 민중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 혐오감 역시 크게 작용했다.

### Ⅲ. 급변기 러시아 유대인

18세기 초에서 19세기에 걸쳐 러시아의 유대인들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여러 법률적 제약과 사회적 고립, 러시아어에 대한 지식 부족 등으로 러시아의 사회적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1825년 황제와 귀족들에 반해 민중의 자유를 최초로

---

의 없었다. 러시아 민중들이 일상적 생활에서 유대인과 만나면서 나타났던 자연스러운 유대인 혐오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1883년에는 로스토프, 예카테리노그라프에서 1884년에는 니제 노브고로드에서 소규모 포그롬이 다시 발생하였다. 이런 포그롬은 러시아 유대사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포그롬 이후 5월법이 시행되면서 유대인에 대한 공공연한 차별이 행해졌고 이로 인해 유대인들이 러시아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운동이 태동하게 된다. 2차 포그롬은 1905년 혁명과 연관되어 일어난다. 1차 포그롬이 주로 러시아 민중들의 자연스런 감정 표출에 의한 것이었다면, 2차 포그롬은 혁명 운동을 제지할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 유도된다. 신문에 반유대주의적 내용을 실게 하여 민중의 눈을 혁명에서 유대인들에게로 돌려보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었다. 참가자들은 주로 농민과 철도노동자, 소상점 경영자들이었다. 이때는 1차 때와 달리 유대인 학살이 이루어졌으며 보다 더 많은 유대인 마을이 파괴된다. 각 지방 당국은 정부로부터 포그롬 참가자를 진압하지 말 것과 유대인 자위단으로부터 참가자들을 지킬 것 등을 지시받는다. 때문에 지방 경찰과 군은 포그롬이 발생하였어도 진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3차 포그롬은 1917년부터 1921년 사이에 발생한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포그롬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로 일어나며 1917년 러시아 혁명과 그 이후 계속됐던 내란과 연관되어 일어난다. 처음에는 옛 황제군의 병사들이 유대인과 브루즈아의 타도를 외치며 일어났으나 코사크인 우두머리들이 이끄는 포그롬도 수차례 발생하게 된다. 1919년 이후에는 반혁명군들이 유대인을 쓰러뜨리고 러시아를 구하라는 기치 아래 포그롬을 일으키기도 한다. 수많은 유대인 학살과 마을이 파괴되었음은 물론이다. 이 기간에는 유대인 자율단이 만들어져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소비에트 정권이 확립된 이후에는 유대인 지지와 보호를 통해 포그롬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혁명기 내란 중에 발생한 포그롬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이런 포그롬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유대인에 대한 자연스런 민중들의 감정에 의한 것이었으나 점차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유대인에 대한 민중의 감정을 이용하고 조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르짖었던 러시아의 제카브리스트들 역시 일반 민족적 시각과 거의 차이가 없었고 유대인 혐오주의자들이 대부분이었다.<sup>9)</sup> 그들은 자신의 그룹을 받아들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 신앙<sup>10)</sup>을 가진 러시아 시민만 받아들였다. 제카브리스트 그룹에 받아들여졌던 유일한 유대인으로는 페레츠(Г. Перетц)가 있었는데 그는 부유한 전매 특허 취급인 아들이었다. 20-40년대 초까지도 유대인 대학생들은 학생 그룹에 참여할 수 없었다. 대표적인 예로 유명한 페트라썬스키 그룹에도 유대인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50-60년대 나로드니키주의자들에서는 종종 유대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1856년 키예프의 한 도시에서 일어났던 농민 봉기에 최초 유대인 학생이 등장했고, 1860년대 초 혁명 운동에는 유대인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나로드니키주의자들은 유대인을 배척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러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라는 생각이 강했다. 1880년대에는 조직의 핵이 와해된 후에도 유대인은 나로드니키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1884년에서 1890년간 재판된 1029명 중 유대인은 94명이나 되었다. 1880년대 혁명운동 참여자의 약 9%가 유대인이었다. 그러나 조직의 지도자나 이데올로기 대표자는 한명도 없었다.<sup>11)</sup> 이 당시 유대인 운동가들은 무엇보다 러시아 민중의 자유를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러시아인도 유대인도 전 인류적 사상의 보유자로서 여겼으며 러시아 민중에 대한 일반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농민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당시 러시아 나로드니키들과 동일한 것으로, 농민들에게 선전 운동을 하던 중 유대 혁명가들은 그들의 러시아 민중에 대한 생각이 실제와는 다름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나 농민 해방 사상에 환멸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었다. 나로드니키들에게 유대인 문제해결은 러시아에 사는 다른 민족들과 유대인들의 완전한 동화 내지는 혼합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과거 유대랍비학교 학생이었던 많은 유대인 나로드니키들은 종교에 대해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다. 드물게는 유대인 혁명기관을 만들고 유대인들의 언어 이디시어로 유대인 사이에서 선동운동을 하고자 하는 리베르만(А.Ы Либерман)같은 사람도 있었다.

나로드니키들 사이에 유대인 혐오의 기운을 이용하려는 최초의 시도가 1874년 나타나는데 러시아 혁명의 할머니라고 불리는 브레슈코 브레슈코브나(Е. Брешко-

9) Л. Прайсман, *История евреев России*, М (Лехаим, 2005), с.320.

10) 폴 존슨이 유대인들이 유럽사회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으로 세례를 든 것처럼 러시아에서도 러시아의 사회 속으로 받아들여진 유대인들은 대부분 세례를 받은 개종한 유대인들이었다.

11) Л. Прайсман, *История евреев России*, М, p.327.

Брешковна)는 민중의 압박자에 유대인을 언급하며 그들 스스로는 아무 것도 못 하며 어떤 고통도 맛보지 못했다고 언급한다.<sup>12)</sup>

소련의 혁명가들은 애초부터 유대인들의 권익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오직 정치적 경제적 관심사에 의해서 모든 사안을 결정했다.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은 항상 존재했지만 유대인 생존권에 관한 문제는 혁명의 중요 과업에 비한다면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졌다. 혁명 초기 국가 운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1917년 소비에트 국가를 천명한 후에도 공개적인 반유대주의 표명은 한 번도 없었다. 당시 혁명을 이끌었던 지식인들은 반유대주의가 인종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경제적 관심사와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학자 미하일 리프(Michael Riff)는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은 주로 유대인 부르주아에 국한되었을 뿐, 이른바 “가난한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러시아의 유대인 밀집지역에 모여 살던 유대인 출신의 무산계급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이들은 서방세계에 동화된 유대인들과 달리 자신들의 고유한 유대주의 생활방식을 고수하면서, 다른 인종들로부터 스스로 거리감을 갖고 있었고 이로 인해 외부와 단절된 폐쇄성을 가지고 있었다.<sup>13)</sup> 그러나 반유대주의 감정에 의해 보복 받거나 피해를 받는 많은 이들은 대부분 이런 힘없는 유대인들이었다.

레닌 역시 반유대주의 반대자였으나, 유대인 문제를 지엽적이고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하였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복잡한 정치 경제적 상황 속에서 권력 투쟁의 승리를 이룩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 역시 소련의 인민으로 동화되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그는 차르 치하의 이디시어는 중세의 유물에 불과했고, 이보다 중요한 것은 단결된 모습을 보이는 혁명당의 활약이라고 주장한다.<sup>14)</sup>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혁명의 전초병으로 충실히 활약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혁명가들은 혁명의 와중에서 유대인들을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용한 다음 대대적으로 탄압했다. 레닌 역시 소비에트 공화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 없었고 실제로 레닌의 지지자들 가운데에는 유대인 출신 정치가들이 많았다. 1917년 레닌이 독일의 봉인열차를 타고 러시아로 귀환했

12) Л. Прайсман, *История евреев России*, М, p.332.

13) 그러나 일반 민중들에 의한 반유대주의 표명의 한 가지로 포그롬을 이해할 수 있다면 민중들의 분노 표현은 부르주아 유대인이건 가난한 유대인이건 가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포그롬으로 인해 가난한 유대인들의 거주지가 수차례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14) Л. Прайсман, *История евреев России*, М, p.337.

을 때 그는 시노비예프, 라데크, 아브라모비치 등의 유대인을 대동하고 귀환했다.<sup>15)</sup> 혁명의 전초 역할을 했던 각지의 유대인들의 힘을 규합할 수 있는 정신적 지도자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 때 레닌은 유대인들에게 우호적 태도를 취하면서 당시 러시아에 팽배해져 있던 반 유대주의를 신랄하게 비난하며 유대인을 능력 있는 민족이라고 추켜세운다.<sup>16)</sup> 그러나 나중에 레닌 역시 이런 순간적인 동지이자 영원한 타자에게 등을 돌리고 만다. 물론 당시 유대인 혁명가들이 주로 멘세비키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정치적 노선이 약간 다른 점도 있었겠지만, 1919년 말 소련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한 레닌의 설계에서도 이미 볼세비키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하여 소련의 영역에 포함시킬 경우 유대인 소시민 계층은 배제시킬 것<sup>17)</sup>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찍부터 레닌 역시 유대인을 영원한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볼세비키들은 급진적 농업개혁을 주장하는 나로드니키들과 차르 치하에 존재했던 수많은 프롤레타리아 유대인들을 처음부터 포기할 수 없었다. 그들은 상당수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유대인 특유의 조직망도 갖추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포기하는 것은 커다란 전략적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혁명의 주요 활약가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신들 속의 타자’로만 여기고 있었다. 함께하면서도 늘 적대감을 갖고 있었고 이것은 러시아 내전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많은 유대인들이 반군 세력인 백군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 전투에 가담함으로써 볼세비키 세력에 서서히 합류하기 시작하는데, 백군은 처음부터 반유대주의를 표방하고 있었고<sup>18)</sup> 우크라이나지역이 전통적으로 반유대주의적 성향이 강한 곳이기도 했다. 그런데 볼세비키들은 내전에 참여한 유대인들<sup>19)</sup>을 같은 아군이면서도 참혹하게 도륙해 버린다. 단지 그들이 유대인이라

15) 레닌의 독일에서의 귀환은 슈테판 츠바이크, 『광기와 우연의 역사』, 안인희 역 (자작나무, 1999), 305-312쪽 참고.

16) Л. Прайсман, История евреев России, М., pp.336-337.

17) R. Pipes, “Unpublished Lenin”, in: V. Brovkin, *The Bolsheviks in Russian Society. The Revolution and the Civil Wars* (New Haven, 1997) p.203.

18) 폴 존슨, 『유대인의 역사』, 김한성 역, 제 3권 『홀로코스트와 시오니즘』 (살림, 2008), 74-75쪽.

19) 러시아의 작가 이삭 바벨은 『기병대』라는 작품을 통해 당시 내전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다. 여기에서 작가는 여러 유대인 군상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전쟁의 일방적인 피해자로 등장하는 힘없는 유대인의 모습에서 고전적인 모습의 유대상인, 그리고 카자크에 끝까지 동화되고 자 하는 유대인 출신의 안경 쓴 모습의 주인공 등을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 러시아 병사들의 모습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어 소비에트 전쟁문학의 주요 작품으로 손꼽힌다. 또한 작가 역시 유대인 출신으로 당시 그가 처한 상황은 대표적인 유대인의 상황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도 작품 속에 그리고 있다.

는 이유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이 혁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이유는 그들이 혁명의 성공이 인류의 전반적인 해방뿐 아니라 그들이 유대인이었다는 명에서도 해방시켜주리가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소망은 그들을 다시 유대인이라는 명에 속으로 흡아매는 역할을 하고 만다. 당시 유대인 볼셰비키들은 인민위원, 조세감독관, 관료 뿐 아니라 비밀경찰인 체카에서도 다수가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부농들로부터 곡물을 착취하기 위해 레닌과 트로츠키가 만든 조직된 공격부대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일반 민중들 사이에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심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들은 볼셰비키였고 유대인이었으며 반사회적 정치자금 조달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급변기 러시아 유대인들의 활동은 스탈린이 권력을 잡음으로써 와해되고 만다. 그는 철저한 반유대주의자였고 이로 인해 그가 권력을 잡자 유대인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면서 1920년대 말쯤에는 그들의 활동이 거의 와해되었다. 정부 요직에 있던 유대인들도 거의 대부분 숙청당하고 반유대주의가 강화되었다<sup>20)</sup>. 스탈린의 이런 반유대주의는 유대인이었던 트로츠키에 대한 반감으로 더욱 강화되었다고 한다. 유대인들은 트로츠키 산하 멘셰비키에 대거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공산당 내부에서 활동했던 유대인들은 스탈린의 희생자 중에서 엄청난 수를 차지하게 된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시오니즘과도 연관된다. 시오니즘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국가로 되돌아가리라 하는 갈망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시민의 사해동포주의를 부추기게 되고 그로 인해 특정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희석되게 된다<sup>21)</sup>. 그들의 국적은 어디인가? 이 부분은 특히 스탈린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는 유대인의 국가가 존재해서는 안 되며, 소련 내의 유대인들이 반드시 소련 인민으로 동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대인출신의 지식인들은 대부분 시오니즘에 입각한 사해동포주의의 이념을 신봉하고 있었고 소련의 볼셰비키들은 처음부터 시오니즘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

20) 자세한 것은 Кац, А. С. Евреи, *Христианства Россия От пророков до генсеков*. (М. АБ у. 2006), сс.344-366 참고.

21) 이 문제는 현재까지도 유대인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 라는 편견을 심어주고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건국되자 각 나라에서는 유대인 국적 문제가 논의된 적도 있었다. 이에 대한 문제는 빅토르 쿠페르맹크, 『유대인, 유대인은 선택받은 민족인가』, 정혜용 역 (웅진 지식하우스, 2008), 34-41쪽 참고.

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자 이로 인한 갈등은 증폭되었고 스탈린은 1952년 유대인 반 파시즘 위원회의 지도자 12명을 재판에 회부한 뒤 총살해 버렸다.

#### IV. 나오는 말

앞에서 살펴보았던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은 한 번도 제대로 고려되어 본 적이 없었다. 제정기 러시아 황제들은 유대인들의 권익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다. 아니 그들을 동화시켜야할지 말아야 할지 여부조차 고려하지 않았다. 러시아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 그들을 보호하고자 일방적인 탄압이나 정주지 규제 정책을 사용했고 제정 말기에는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의도적인 포그롬을 유도하기까지 했다.

급변기의 소련 정치가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 역시 처음부터 유대인들의 권익에는 관심도 없었고 자신들의 편익에 의해 유대인 동화정책이니 분리니 하는 문제들만 체계 없이 언급했을 뿐이다. 그들은 혁명의 와중에서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나서 잔혹하게 버렸다. 유대인이란 항상 필요에 의해 사용했다 가차 없이 버릴 수 있는 ‘미운 우리 편’, ‘우리 속의 버리고 싶은 타자’로 존재할 뿐이었다.

반면 러시아 유대인들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러시아 속에서 고독한 섬이었다. 일반 힘없는 유대인들은 고립되어 두려움 속에 껍박 받으며 생활했고, 급변기 유대 지식인들은 러시아 민중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끝없는 동화의 몸짓을 보였다. 유대인이란 사실은 그들 자신이 잊고 싶고 버리고 싶은 멍에이기도 했다. 그것은 혁명이 거대한 힘이 되어 나타나기도 했고, 자신들의 고향을 찾고자하는 시오니즘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몸짓들은 항상 던진 사람을 향해 되돌아오는 부메랑처럼 유대인들에게 되돌아와 그들에게 시련이 되었다.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이후로 유대인박해는 냉전이라는 세계 정치적 흐름 속에서 더욱 극심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유대인들처럼 지속적으로 박해를 받아온 민족이 있었던가? 보통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종교적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교황 요한 23세가 <우리 시대>라는 선언을 통해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저지

른 오류와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관계를 재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sup>22)</sup> 조금이나마 해결될 실마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의 고정관념 속에 박혀 있는 ‘예수를 배반한 유대인’이라는 관념을 어느 정도까지 바꿔놓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서구 문명의 토대를 이루는 기독교를 있게 했던 민족이 그 종교로 인해 인류역사상 가장 핍박 받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인류 문화의 중심과 주변을 오고가며 막대한 영향을 끼쳐온 유대인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하고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정당한 자리를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으로 러시아와 동구에서 이루어졌던 포그롬에 대한 올바른 조사와 급변기 유대인이기를 거부했던 비 유대인들이 자행했던 유대인들의 테러에 대해서도 정당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2) 빅토르 퀴페르맹크, 같은 책, 19-26쪽 참고.

• 참고문헌

- 강영수, 『유대인 오천년사』 (청년 정신, 2003)
- 김종빈, 『갈등의 핵, 유대인』 (효형출판사, 2007)
- 이상빈, 『아우슈비츠 이후 예술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책세상, 2005)
- 빅토르 퀴페르맹크, 『유대인, 유대인은 선택받은 민족인가』, 정혜용 역 (웅진 지식 하우스, 2008)
- 슈테판 츠바이크, 『광기와 우연의 역사』, 안인희 역 (자작나무, 1999)
- 폴 존슨, 『유대인의 역사 1, 2, 3』, 김한성 역 (살림, 2005)
- Pipes, R., Unpublished Lenin, in: V. Brovkin, *The Bolsheviks in Russian Society. The Revolution and the Civil Wars*, (New Haven, 1997).
- Аркадий Зельцер, *Евреи советской провинции. Витебск и местечки 1917-194* (Российск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2006).
- Арно Люстигер, *Сталин и евреи. Серия: История сталинизма* (Российск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2008).
- Будницкий.О. В., *Российские евреи между красными и белыми (1917-1920)* (Российск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2005).
- Бычков, В.В., *Эстетика поздней античности* (Наука, 1981).
- Габриэла Сафран., “Переписать еврея...”, *Тема еврейской ассимиляции в литературе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1870-1880* (Академический проект, 2004).
- Гинзбург. К., *Мифы-эмблемы-приметы. Морфология и история* (Наука, 2004).
- Гуравич. П. С., *Культурология. Москва* (Гардарика, 1999).
- Гуревич. А. Я., *Категории средневековой культуры* (Искусство, 1984).
- Денис Соболев., *Евреи и Европа. Серия: Чейсовская коллекция* (Текст, 2008).
- Джошуа Трахтенберг., *Дьявол и Евреи* (Гешарим, 1998).
- Дубнов. С. М., *История евреев в Европе* (комплект из 4 книг), *Серия: Памятник иврейской исторической мысли. Мосты культуры* (Гешарим, 2003).

- Елинер. Э. И., *Житие советского еврея Тайм, Агентство* (РДК-принт, 2004).
- Кац, А С., *Евреи Христианства Россия От пророков до генсеков* (М АБу, 2006).
- Павел Зайдфудим, *Русский еврей Реабилитация экстремальной среды Издательства Параллели* (Дом еврейской книги, 2006).
- Прайсман, Л., *История евреев России* (М., Лехаим, 2005).
- Феликс Кандель, *Книга времен и событий История евреев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1939-1945). Том 4. Мосты культуры* (Гешарим, 2004).
- \_\_\_\_\_. *Книга времен и событий История евреев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1941-1945). Том 5. Уничтожение ев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Серия: Библиотека российского еврейского конгресса Мосты культуры* (Гешарим, 2006).

## РЕЗЮМЕ

Йнонь Хи Ким

Россия была для евреев очень неудобной страной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Еврей стали попадать в Россию и до раздела Польши в основном в качестве врачей. Незначительное число евреев в допетровской Руси, казалось, не допускало мысли, что Россия вдруг станет центром еврейским центром, но это случилось именно почти вдруг, после присоединения Польши и Литвы к империи.

Самое интересное, что после присоединения Польши российские владыки столкнулись не просто с евреями, а хасидами, которые и своих соплеменников-то озадачивали необычностью жизни и внешнего вида, а уж русских чиновников и подавно. Нежданно-негаданно хасидизм стал составной частью российской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и многие его центры оказались в пределах империи.

Озадаченность росси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ведением своих новых поданных была настолько сильной, что сначала в 1791 г. при Екатерине Великой евреям было дано разрешение на проживание только в 15 западных губерниях империи.

А в правление Николая I, при котором, кстати сказать, было принято значительное число законов,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улучшение положения евреев

Данная статья посвящена рассмотрению-Еврейв России-кто он? Что такое антисемитизм в России? Трудно сказать насколько сильно повлияли иудаизмом навеянные ереси в русском православии на политику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отношении евреев. Русск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сегда использовали евреев для своей пользы, но они не помогают им. Даже большевики только использовали евреев особенно во время революции, а после этого они не хотят помакать им. Еврей всегда чужой для русских. Первая мировая война и Октябрьская революция ненесли евреям России

страшный удар, который многими воспринимался как трагедия, пока трагедия Холокоста не заслонила её.

Key Words: Russian Jew, Pogrom, N. Lenin, Jewish Community, Revolution

필자 E-mail: a8507009@hanmail.net (김연희)

투고일: 2012년 7월 10일/ 심사완료일: 2012년 8월 6일/ 게재확정일: 2012년 8월 10일